

☰ 홈 > 뉴스 > 뉴스 > 코리아나뉴스

동포재단, '2015 한글학교 맞춤형 우수 프로그램' 10개 선정

텍사스주한국학교 '한글날, 세종대왕과 독도를 만나다'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꼽혀

2016년 01월 19일 (수) 11:37:17

이석호 기자 ✉ dolko@hanmail.net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은 1월19일 “‘2015년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우수 프로그램’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동포재단은 2014년 말과 지난해에 세계 117개국 1,875개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요조사를 실시했고, 지난해에 총 218건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했다. 그리고 218건의 지원에 대해 결과보고를 받아, 10건의 프로그램을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했다.

동포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텍사스주한국학교가 시행한 ‘한글날, 세종대왕과 독도를 만나다’라는 사업이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뽑혔다.

이 밖에 △동경한국학교부설토요학교의 ‘광복 70주년 맞이 2015 여름 한글캠프’ △뉴잉글랜드한국학교 ‘우리의 역사박물관 및 문화체험관’ △뉴저지한국학교의 ‘뉴저지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 △성 김안드레아한국학교의 ‘미주 이민역사 교육을 통한 한국학교의 역사 교육 교재 개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백서, 학교운영 서식집 및 상설강사 목록집 개발·출판’ △프랑크푸르트한글학교의 ‘좋은 수업 프로젝트/우리학교에 맞는 글쓰기와 역사교육’(교재개발) 등 6건은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또 △브라티슬라바한글학교의 ‘독도의 날 캠프’ △성 바오로정하상한국학교의 ‘전통문화의 향연 붓글씨대회’ △프랑스한글학교협의회 ‘프랑스지역 한글학교 청소년캠프’ 등 3건은 장려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동포재단은 최우수 프로그램에는 3,000달러, 우수 프로그램에는 2,000달러씩, 장려 프로그램에는 1,000달러씩을 상패와 함께 전달할 계획으로, 시상식은 해당 공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동포재단 교육지원부 관계자는 “재외동포재단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 한글학교 현장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했다”며 “앞으로도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해 한글학교

교육역량 내실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월드코리안뉴스(<http://www.worldkorea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